



쪽지 시험 1

(2) 올바른 발음과 표기

2. 놀라운 한글, 바른 말글살이

반 번 이름

-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것은,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긴다는 뜻이다. (○, ×)
- 발음을 잘못하면 상대에게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발음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 발음법이 필요하다. (○, ×)
- 겹받침 'ㄹ', 'ㄴ', 'ㄷ'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. (○, ×)
- 한글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,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. (○, ×)

💡 (5~7)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.

- 받침소리로는 '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'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.
- '하늬바람', '닐리리', '우늬'의 이중 모음 '니'는 모두 [니]로 발음된다.
- '나는 학교에 □ 갔다.'에서 '□'은 '아니'의 준말이고, '그거 먹어도 □요?'에서 '□'는 '되어'로 풀 수 있는 말이다.
- 이번에도 공모전에 떨어지면 (어떡해 / 어떨해)?
-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맑아 하류의 물도 맑다([말따] / [막따]).
- 그 남자는 눈빛은 맑고 빛났으나 코는 뭉툭하고 입은 넓죽한([넙쭈칸] / [넙쭈칸]) 것이 볼품이 없었다.

-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,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(○, ×)
- '빛을'은 홑받침 'ㅊ'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'을'과 결합하였으므로 [비슬]과 같이 발음해야 한다. (○, ×)
- 겹받침 'ㄱ', 'ㄴ', 'ㄷ', 'ㄹ', 'ㅁ', 'ㅂ', 'ㅅ'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[ㄱ, ㄴ, ㄷ, ㄹ]으로 발음한다. (○, ×)
- '희망'과 '의리'에서 이중 모음 '니'는 모두 [니]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. (○, ×)

💡 (5~7)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.

- 받침 'ㄱ, ㅋ', 'ㄴ, ㄷ, ㄹ, ㅁ, ㅂ', 'ㅅ'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[ㄱ, ㄴ, ㄷ]으로 발음한다.
- 모든 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 없어서 □□□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적는 표준 발음법이 필요하다.
- '짐을 외국으로 □□□[부치다].'와 '상처에 반창고를 □□□[부치다].'는 발음은 같으나 뜻과 표기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.
- 나는 열 문제 중에서 겨우 세 개만 (마쳐서 / 맞혀서) 자존심이 무척 상했었다.
-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꿇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무릎이([무르피] / [무르비]) 아팠다.
- 어머니께서 차려 주신 음식이지만 (안 / 않)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있자나 기분이 좋지 (안왔다 / 았았다).